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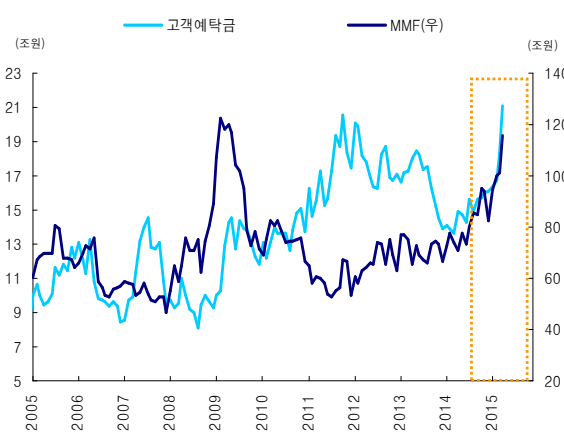
중국증시와 코스닥의 공통점

1. 중국증시의 강한 랠리는 본토자금에 의해 주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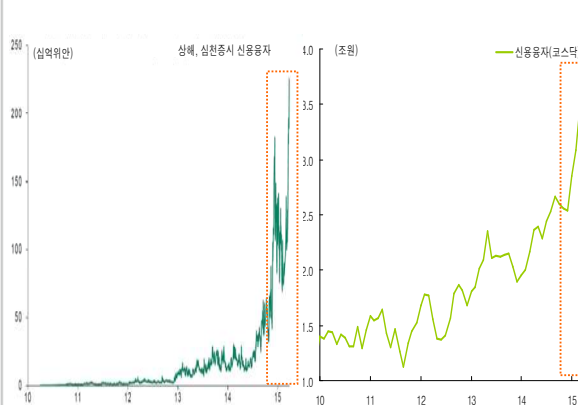
- 중국증시 강세는 외국인 자금보다 본토자금의 증시유입 효과가 큼
- 중국 당국의 연쇄적인 기준금리 및 기준을 인하 효과와 추가 부양기대감을 배경으로 중국 내부 자금의 증시유입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
- 전일 발표된 기준을 100bp 인하 소식 또한 이러한 거시정책 방안의 일부로서, 일정부 분 시장가격에 반영되어 있었기 때문에 호재로서 영향력은 다소 제한적일 듯
- 오히려 재료소멸에 따른 차익실현 압력과 17일 발표된 주식과열 억제정책이 맞물리면서 주가조정이 심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

2. KOSDAQ의 강한 상승 또한 국내자금 유입 영향



- KOSDAQ 상승 랠리 또한 국내 개인자금의 증시유입 효과가 핵심배경
-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고객예탁금과 MMF 잔고 수준도 KOSDAQ의 강세를 지지
- 주택담보대출 완화 기준금리 인하 등의 효과로 인해 국내 개인자금의 KOSDAQ 유입이 급증하고 있다는 판단 (마르지 않는 유동성 4/14 발간자료 참조)
- 따라서 향후 KOSDAQ의 추가 상승 여부는 대외 이슈보다는 대내 재정 및 통화정책 이슈에 연동될 가능성이 높아 보임

3. 신용거래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도 공통적



- 중국증시와 KOSDAQ의 단기과열은 국내투자자들의 신용거래급증에도 일부 기인
- 지난 17일 발표된 증시과열 억제책도 (기관투자자 주식대여 허용, 마진트레이드 규제강화) 이러한 과도한 risk-taking을 억제하기 위함임
- 이에 따른 중국증시의 가격조정이 여타 글로벌 증시로 전염되지는 않을 것 (당국의 규제 영향력은 중국 내부의 수급에만 국한될 뿐 글로벌 유동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)
- KOSDAQ의 조정 여부 또한 해외이슈 보다는 국내 정책영향과 이에 따른 내부 유동성 유출입에 연동될 듯

4.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?

- 중국증시와 코스닥의 공통적인 배경은 "본토자금에 의한 랠리". 따라서 양 증시의 방향성은 글로벌 유동성 보다 내부 유동성에 의해 좌우될 것
- 지난 17일 발표된 중국 당국의 증시과열 억제책은 "중국 본토자금의 과도한 증시유입을 억제하는 것" 이 그 목적임 규제 영향력은 중국 내부의 수급에만 국한될 뿐 글로벌 유동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(중국증시 조정이 한국증시 조정으로 전염될 수 없음)
- KOSDAQ의 조정여부 또한 대내 유동성 및 정책변수에 달려있음. 단기관점에서 풍부한 내부 유동성 환경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KOSDAQ의 강세기조도 이어질 전망

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 판단을 돕기 위해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. 본 자료는 조사분석 담당자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나, 제공되는 정보의 완전성이나 정확성을 당사는 보장하지 않습니다. 모든 투자의사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하시기를 바라며,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어떠한 법적 분쟁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,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배포, 복제, 인용, 변형할 수 없습니다.